정책논단

한·중 FTA 협상과 제주농업의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 승 진

한·중 FTA 협상에는 1단계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와 특별취급 품목 수, 양허 제외율, 관세 철폐 품목 범위 등이 결정되는 '모델리티(modalities)' 협상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한·중 FTA 추진과정과 관련 제주 주요 농산물과의 관계를 통하여 제주농업의 과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Ⅰ. 들어가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미 FTA가 논의되다 2012년 3월15일 공식 발효됐다.

제주도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주감귤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10여 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 감귤농가와 행정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자마자 이번에는 한·중 FTA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지난 5월2일 한·중 FTA 1차 협상(베이징), 7월3일 2차 협상(제주), 8월22일 한·중 FTA 3차 협상이 중국에서 개최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한·중 FTA는 한·미 FT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미 FTA는 감귤과 쇠고기 중심이고,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도 계절관세를 통해 들어온다. 중국과의 FTA인 경우 중국이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

후·작물·식습관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1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한·중 FTA가 제주농업을 전멸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제주를 포함해 전국 농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다.

우선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직접적 반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반대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미래에 대해 대비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 FTA 추진과정을 통해 경험했듯이 향후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자구노력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사전 준비로 인해 제주농업에 다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수립된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FTA 추진과정과 관련 제주 주요 농산물과의 관계를 통하여 제주농업의 과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II. 한·중 FTA 협상 개요

1. 한·중 FTA 협상 추진경과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양국간 FTA 추진 논의를 2004년 9월부터 전개해 왔으며, 한·중 양국은 2005~2006년 민간 공동연구기관간 공동연구, 2007~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 2010년 9월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등으로 발전하여 왔다.

2010년 하반기 이후 한·중은 양국간 FTA 추진 원칙에는 접점을 형성했으나 협상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한·미 FTA 이행 이후에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점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협상 개시 요청을 수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가운데, 한·중 FTA 협상이 한·미 FTA 비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중 FTA 협상 추진에 따라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았으며, 지난 3~4년 사이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의 의제로 중국측은 줄곧 한·중 FTA 협상개시를 제안해 왔다.

중국은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이행이 진전될수록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을 제

안해 왔으나, 한·미 FTA 협상, 비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국측 요청을 적극 검토하지 못했다.

2011년 5월 한중 정상회의(중국)시 경제통상 협력과 관련해서 양정상은 경제협력 추세를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의견을 근접시켰다.

〈표 1〉 주요 한·중 FTA 추진경과

날짜	내용
2004.9	한·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합의
2005~6년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간 공동연구
2006.11.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
2007.3~2008.6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5차 회의 개최
2010.2.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
2010.4.	한·중 FTA 추진 검토에 대한 정부내 고위인사(대통령) 발언
2010.5.	한·중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1.5.	한·중 정상회의에서 협상 착수에 의견 근접
2012.1.	한·중 정상회의, FTA 국내절차 개시 합의
2012.2	한·중 FTA 공청회
2012.5~8	한·중 FTA 1차–3차 협상 개최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www.fta.go.kr) 및 자료 재정리

또한 민간공동연구·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협정의 주요 내용, 민감부문 등에 대해 점검한 상태이며 2012년 1월 한·중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그동안 논의해 온 한·중 FTA를 공식협상 단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협상 전략[1)]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하에서 자국 경제의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15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11월 WTO 가

1) 최세균외, 중국의 FTA협상전략과 한·중 FTA 에 대한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9. 재인용.

입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DDA 협상이 정체됨에 따라 보다 긴밀한 양자간 무역체제인 FTA를 적극 추진하는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중국은 대외무역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성장을 목적으로 FTA를 적극 추진하여 2012년 8월 현재 ASEAN, 칠레, 코스타리카, 홍콩(CEPA), 마카오(CEPA), 뉴질랜드, 싱가포르, 파키스탄, 페루, 대만(ECFA)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걸프만협력회의(GCC),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스위스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12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8월 3차 협상을 끝낸 상태다.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협정당사국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주로 개발도상국가이고 지역적으로는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 중국의 FTA 체결 현황

협정 당사국	체결일	발효일
ASEAN	2002. 11. 4.	2010. 1. 1.
홍콩	2003. 6.29.	2004. 1. 1.
마카오	2003. 10.17.	2004. 1. 1.
칠레	2005. 11. 8.	2006. 10. 1.
파키스탄	2006. 11.24.	2007. 7. 1.
뉴질랜드	2008. 4. 7.	2008. 10. 1.
싱가포르	2008. 10.23.	2009. 1. 1.
페루	2009. 4.28.	2010. 3. 1.
코스타리카	2010. 4. 8.	2011. 8. 1.
대만	2010. 6.29.	2011. 1. 1.

자료: 최세균외, 중국의 FTA협상전략과 한·중 FTA 에 대한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9. 재인용.

중국이 기체결한 FTA의 협상 내용을 보면 FTA를 추진하는 배경이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외교적인 동기도 작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칠레,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우선시한 반면 인접한 동남아시아 권역의ASEAN1), 대만과 체결한 FTA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 외교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한·중 FTA와 제주농업

1) 한(제)·중 주요작물 현황

중국은 세계 최대 식량생산 국가로 농지면적은 2010년 기준 1억 1,100만㏊, 쌀생산은 1억 9,580만 톤으로 소맥이 1억 1,520만 톤, 옥수수가 1억 7,720만 톤, 대두가 1,510만 톤으로 추정되며 세계 최대 규모이다.

중국농업의 GDP는 2010년 6.93조 위안(약 1,178조원)이며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약 27배이다.[2)]

제주지역과 관련된 주요작물 한·중 재배 및 생산량을 비교하면 감귤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약 105·43배가 되며, 감자 약 242·122배, 두류 약 131·108배, 마늘 약 29·50배, 양파 약 51·15배, 무 약 51·33배, 당근 약 155·142배, 양배추 약 149·90배가 되고 있다.

〈표 3〉 한(제)·중 주요 농산물 재배·생산량 현황(2010년 기준)

구 분	중국			한국			제주도		
	면적 (천㏊)	1㏊단수 (㎏)	생산량 (천M/T)	면적 (천㏊)	1㏊단수 (㎏)	생산량 (천M/T)	면적 (㏊)	1㏊단수 (㎏)	생산량 (톤)
감귤류	2,211	11,964	26,453	21.1	29,077	615	21,122	29,099	614,650
감자	5,083	14,417	72,282	21	28,143	591	3,078	20,119	61,927
두류	9,190	1,630	14,981	70	1,986	139	6,971	1,611	11,231
마늘	773	23,160	17,900	26.3	13,570	357	3,448	16,040	55,316
양파	948	22,200	21,047	18.5	74,120	1,372	1,037	58,220	60,369
무	1,201	33,970	40,799	23.7	52,840	1,256	4,427	59,990	265,179
당근	433	34,770	15,057	2.8	37,600	106	1,681	42,500	71,443
양배추	880	33,660	29,625	5.9	55,300	331	2,239	59,950	134,228

자료: 중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및 제주도 농림수산식품부
주: 감귤류 한국·제주도 통계는 KOSIS 자료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재배면적과 생산량 비교에서 보듯이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한·미 FTA, 한·중FTA 농축산분야 대응대책, 2012.6. 81p.

2) 제주지역과 관련된 주요 농산물 협상 내용

한·중 FTA 농업분야 쟁점은 크게 민감품목과 관세율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중국의 지역화 공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나뉜다. 중국산 농산물을 일방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신선채소류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과일류와 축산업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 4. 17. 정부는 농산물분야 초민감품목군 12개 작물을 발표하였다.[3] 선정기준으로는 국내농업생산액이 높고 현행 양허세율 100%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쌀, 감귤, 마늘, 콩, 고구마, 양파, 감자, 참깨, 고추, 인삼, 우유, 벌꿀 12개 작물을 초민감품목으로 선정하였다.

또 한 「한·중 FTA 1차 협상 개시 선언(‘12.5.2.)」으로 협상이 추진되면서 양국은 우선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하여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에서는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하여 개방 폭을 논의하는 협상이고, 2단계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분야에 대해 개방품목을 논의하는 협상 형식으로 합의했다. 즉, 초민감품목을 1단계 협상 시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도록 협상한 후, 2단계 협상을 진행하는 방침이다.

여기서 1단계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모델리티(modalities) 협상방식이라고 하는데, 민감품목을 얼마나 할 것인지, 양허제외를 몇 프로(%)로 할 것인지, 특별취급 품목을 얼마나 할 것인지 등 관세 철폐 품목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아시아권 나라들과의 FTA 협상에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발표한 초민감품목 중 제주지역에 포함되는 작물은 감귤, 마늘, 콩, 양파, 감자, 참깨인 6개 작물이며, 감귤산업의 생산량 588천 톤·조수입 7,641억 원(2011년 기준), 그 외 5개 작물의 생산량 174천 톤·조수입 2,911억 원(2010년 기준)이다. 그리고 6개 작물의 농업조수입(9,955억원/2010년)은 제주지역 전체 농업조수입(1조 5,406억원/2010년)의 65%로 제주지역에 매우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류인 당근, 양배추, 무, 브로콜리가 초민감품목분류에서 제외됨으로써 제주지역 농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우

3) 우리정부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 등 12개 농산물을 개방 제외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지만 중국과의 본 협상 과정이 남아 있어 FTA 체결 이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선, 현재 정부의 초민감품목으로 선정된 감귤 및 제주지역 주요 밭작물뿐만 아니라 전국 생산비중 20% 이상인 월동채소 당근(65), 양배추(39), 무(21), 브로콜리(63)를 초민감품목에 추가 포함되어 월동채소가 1단계 협상에서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타지역보다 여건상 유리(겨울 기후 등)해서 차별화가 가능한 주요 월동채소인 당근, 양배추, 무, 브로콜리의 2011년 조수입을 보면 3,158억 원으로 채소작물 조수입에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지역농업에 매우 주요한 작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제주지역 주요 농수산물의 한·중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감귤, 참깨, 대두, 마늘, 감자, 당근 등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약 2배에서 7배까지 차이를 보여 주듯이 현재 한·중 도매가격의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만약 양허관세가 철폐된다면 가격 차이는 더욱 큰 폭으로 벌어져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제주지역 주요 품목인 감귤, 참깨, 마늘, 감자, 양파, 무, 당근, 양배추, 콩 등을 민감품목으로 지정 및 확대하여 제주지역 주요 품목 보호 및 피해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표 3〉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의 한·중 도매가격 비교(2010–2011 평균)

품목	중국가격 (원/kg)	국산가격 (원/kg)	가격차 (배)	양허관세 (%)
감귤	709	1,315	1.9	144
참깨	2,437	17,136	7	630
대두	834	5,546	6.7	487
마늘	1,402	5,193	3.7	360
감자	363	1,363	3.8	304
양파	264	647	2.5	135
무	206	767	3.7	45
대파	245	1,592	6.5	27
당근	210	1,347	6.4	27
양배추	207	652	3.2	27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수출입통계, 한·중 FTA 공청회 발표자료('12. 2월), FTA협상동향('12. 3월 농림수산식품부)

3) 한·중 FTA 영향분석

한·중 FTA는 협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된 공식자료 부재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연구내용[4]을 인용하고자 한다.

인용된 결과는 향후 협상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한·중 양국이 합의한 양허내용과 분석된 시점이 현재 시점과의 많은 차이에 따라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에 앞서 밝혀둔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주인 경우, 제주의 농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제주의 지역총생산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제주의 농림수산업의 생산은 단기적으로 9,500억 원 이상 감소하고 제주 전체의 지역총생산은 6,7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 축적되는 자본축적모형에서도 제주의 지역총생산은 약 5,756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중 FTA가 제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4〉 한·중 FTA가 제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원, 명)

산업	생산		고용	
	정태 모형	자본축적모형	정태 모형	자본축적모형
수산업	−42,183	−40,906	−184	−178
나머지 1차 산업	−908,199	−880,706	−2,127	−2,063
BT	−11,526	−9,011	−68	−54
·음식료품	−13,840	−11,703	−81	−69
·화학 및 의약품	2,314	2,692	13	15
나머지 제조업	8,194	10,229	87	123
관광산업	17,024	21,503	479	605
문화산업	16,771	20,211	111	135
·출판/인쇄	1,304	1,638	37	46
·문화오락서비스	15,467	18,573	74	89
교육	19,698	23,654	339	407
보건/의료	17,373	20,862	472	567
나머지 서비스	211,425	258,602	2,492	3,065
총계	−671,423	−575,562	1,601	2,607

주: 2005년 기준으로 평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2008.4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2008.4

4. 한·중 FTA의 농업분야 파급영향 전망[5)]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인 일방무역(one-way trade)이며,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는 식량작물의 교역액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채소류와 가공농산품의 교역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농산물 수입은 가공 농산품류와 채소류(주로 김치와 양념채소) 위주의 품목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 교역의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이며, 신선 과채류, 신선 과실류 및 신선 육류는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양국의 동식물 검역조치가 다수 품목을 대상으로 동시에 해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간 농산물 생산비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간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최근 중국의 노동비용과 토지용역비 상승으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비가 상승함에 따라 수출농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약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농업은 자원부존 여건과 성장 단계상의 차이로 인해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 전초기지인 산동성 채소단지와 동북지방의 곡창지대에서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내산 농림축산물과 동일한 품종과 품질의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성도 높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중국산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소비가 많은 식당 경영주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많은 중국 거주 한국인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시간을 두고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를 통해 현재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

5) 문한필·최세균(2012), "FTA 확산의 영향과 대응과제",「농업전망 2012(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43~78.을 참조하여 재작성

질 경우, 지금보다 고품질의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중국산 농산물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현재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 농산물의 수입량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신선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동식물 검역조치이다. 축산물과 과일류의 낮은 관세(쇠고기 40%, 냉동 돼지고기 25%, 사과, 배 등 대부분의 과일 45% 등)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은 동식물 검역조치에 의한 수입제한조치 때문이다.

중국이 지역별로 청정지역화 정책을 강화하여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한·중 FTA에 의한 관세철폐는 우리 농업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농산물 수출증대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동물 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역화 인정에 대한 규정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중국이 뉴질랜드와 맺은 FTA 협정과 유사한 수준[6]을 요구할 때 검역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의 유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관세철폐 이외에 동식물검역 관련 협상에서 중국의 가축 질병이나 식물 유해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지역화 인정 요구에 대응할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Ⅲ. 한·중 FTA 협상과 제주농업의 과제

현재 제주도는 확대된 FTA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FTA 확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은 협상과정에서 감귤을 비롯한 주요 밭작물인 감자·당근·마늘·양파·양배추·무·브로콜리 등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귤인 경우 한·중 FTA가 체결됐을 경우 '초토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대규모 물량에다 친환경까지 무장한 중국산 감귤이 관세 제한 없이 수입됐을

6) 수출국 내 일부 지역이 병충해 무발생지역 혹은 저발생지역임을 객관적으로 밝힐 경우 수입국의 평가와 인정을 거친 후 양국은 이 지역의 위생상황을 인정할 것과 지역화 관련 원칙, 기준, 절차 등을 양국이 공동으로 제정할 것 등

경우 대책이 없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감귤 생산액 감소는 10년간 누적 피해액 1조624억 원에서 최대 1조 59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무엇보다도 한·중 FTA는 한·미 FTA와 달리 제주 밭작물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총생산액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의 중국산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졌다.

채소류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36.7%에서 2010년 73.9%로 확대됐다. 현재 김치,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당근, 파 등 주요 채소 95% 이상이 중국산이다. 여기에 관세장벽까지 사라질 경우 '생존 기로'에 서게 되는 셈이다.

특히 제주지역 월동채소류인 당근, 양배추, 무, 브로콜리는 전국 생산량 비중 20% 이상 차지하는 작물이면서 제주지역 기후에 적합하여 차별화될 수 있는 제주 주요 품목으로 최근 제주지역 농가소득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중 FTA 협상에는 1단계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와 특별취급 품목 수, 양허 제외율, 관세 철폐 품목 범위 등이 결정되는 '모델리티(modalities)' 협상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에만 조수입 8,599억 원을 기록한 제주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3대 어종으로 불리는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에 대한 양허 관세율 확대, 협상대상 제외품목 지정에 노력해야 한다. 중국산 수산물이 저가공세로 공략하면 제주 수산업의 생존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중요성을 부각시켜 과거 중국이 타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 예외 유형을 가지고 추진한 사례를 강조해야 한다. 즉,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상징적 의미의 FTA를 추진 한다는 의미를 두어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하여 큰 양보를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대중국 통상인력 전문가 영입과 육성, 중국 수출가능 품목 분석, 고품질 친환경농수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피해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방안 수립 등도 중요하다.

최근 중국인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주방문 중국인들

에 대한 제주상품 이미지 제고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주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감성을 드릴 수 있도록 제주지역 특성과 연계한 미래틈새산업의 하나인 6차산업과 디자인농업을 구상해 제주브랜드로 차별화하는 전략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경제권역 간 FTA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주지역과 연관된 한·EU, 한·미, 한·중, 한·일 FTA 등을 총괄해 지역 산업을 분야별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FTA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초민감품목과 관련된 작목인 경우, 이 기회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생산자(단체)·행정 등이 자구노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데 온 힘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역산업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제주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발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JDI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2008.4
문한필·최세균, "FTA 확산의 영향과 대응과제", 「농업전망 2012」,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2012.
제주발전연구원, 대선공약화를 위한 제주 핵심과제 모색, 201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 2012.2.
제주특별자치도, 한·미 FTA, 한·중FTA 농축산분야 대응대책, 2012.6.
제주특별자치도, 2012 주요 농축산 현황, 2012.
최세균외, 중국의 FTA협상전략과 한·중 FTA 에 대한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9.
www.google.co.kr
www.ijejutoday.com
www.naver.com
www.nongmin.com
agrinet.co.kr